

# 장승의 外形的 類型 (上)

李 宗 碩

## I 殘存例

韓國 風物로 중요한 몇가지를 선정한다면 그중에 장승을 꼽을만하다. 장승은 역사적 유물인 뿐아니라 최근까지 住居地域 인근에 친근하게 놓여 있음을 쉽사리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은 이웃 日本이나 中國 땅에 없는 韓國 특유의 民俗彫刻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海外的 국제박람회에 장승을 출품해 韓國館을 꾸미는 상징적 장식물 삼기도 하고 國內에 있어서도 觀光名所에 그걸 새로 만들어 세운 예도 있다. 또 土產品店에서 는 장승의 축소 모형을 人形처럼 판매한다.

이런 일들은 근래의 觀光품에 편승해 생겨난 현상이다. 하지만 韓國 人이 자기의 장승을 「韓國的」인 것으로 깨닫기에 앞서, 半世紀 이전에 이미 한국 風物의 한 특징으로 지목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한국 全域의 허다한 장소에 장승이 서 있었을 開化期 무렵, 한국을 방문한 外國人의 紀行文이나 그런 책자의 挿畫 혹은 風物寫眞帖에 의해서 장승이 소개돼 있는 것이다. 그들 외국인의 눈에 확실히 자기네의 갖지 못한 異國情景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그건 西洋人만이 아니고 日本人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現存하는 장승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崔常壽씨는 『현재 南韓에 남아 있는 장승의 수가 二백五〇개 정도이며 그중 京畿 全羅 慶尙 濟州 지방에 비교적 많은 셈』이라고 추정했다.① 그런데 실제 一〇여년간 여

러 지역에서 탐문한 바로는 南韓에 五〇여개 소 채크릴 뿐이며 그중 절반이 濟州島에 있었다. 文化財管理局이 六七년 전국에 書面質問書를 통해 집계한 바로는 八七개. 道別分布는 江原 四개 忠北 四三개 忠南 一一개 全南 一一개 慶北 三개 慶南 一一개 등이다.② 이 조사도 완 벽한 것은 못되었으므로 앞으로 더 들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殘存例가 결코 많은 수를 헤아리진 못하리라 생각된다.

장승이 격감되기 시작한 것은 西歐思潮의 유입으로 開化되고서부터이며 日帝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무수히 폐기되고 變質돼 버렸다. 본시의 機能은 말할것도 없이 그容貌에 있어서도 만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우는 것들의 태반은 도무지 愛情趣가 우러나지 않는다. 바꿔말하면 그 이전에 韓國的인 것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승이 한동안 忘却속에서 사그러져 버렸고, 뒤늦게 회소해지자 固有의 眞實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必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세우던 習俗이 민중의 생활 속에서 점차 소멸되고 既存遺品마저 이래저래 거의 다 없어진 오늘날 옛 장승에 대한 解明이 어느만큼 가능할까. 자칫 觀光地의 新造品이나, 土產品店의 장승人形이 되지 않기 위하여 傳來의 殘存例를 살펴볼 수 없을 때는 적은 잔존품을 통하여 기본적 類型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再認識이란 이미테이션 愛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경우가 앞서는 것이다.

이 글은 확인된 殘存例에 의거해서 작성하며 그 所在를 예시하면 別表③와 같다. 물론 이들이 모두 遺物이라고 할만큼 역사적인 물건은 아니다. 비록 최근년에 건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골 마을에서 傳來的인 條件과 手法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이에 포함시켰음을 일러둔다.

## II 郷土性

장승을 보다 한국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즉 한

全國장승의 확인된 殘存例

全南	光州市 東門밖	石一雙(全南大)
全北	南原郡 南原邑 王亭里 " 雲峰面 西川里 " 山內面 實相寺 扶安郡 扶安邑 西外里 " 扶安邑 東中里 " 山內面 來蘇寺 高敞郡 雅山面 禪雲寺	石一基 石一雙(민속자료 二〇호) 石一雙( " 一五호) 石一雙( " 一八호) 石一雙( " 一九호) 木一基(全州博物館) 木一基(全南大)
忠北	沃川郡 沃川邑 龍岩寺	木一基(檀國大)
忠南	天原郡 廣德面 廣德里 牙山郡 排芳面 中里 青陽郡 大峙面 長谷里 公州郡 灘川面 松鶴里	石二雙 石一基 木一雙 木數基
京畿	廣州郡 中部面 奄尾里 江華郡 江華面 陽五里	木數基 石一基

국에만 있는 韓國人의 표정이고 익살이란 점이다. 그것은 긴 세월동안에 가다듬어진 民衆의 생활과 감정과 신앙의 所産이고 民衆의 순박한 眼目에 의해 기록된 造形物이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개개 장승을 비교한다면 물론 그것들은 가지각색의 차림이요 형상이다. 어떤것은 石製이고 어떤것은 木製이며 耳目口鼻의 생김새와 수염이나 모자의 부착 방법도 서로 다르다. 材料의 이용방법도 저마다 되는대로 했고 製作手法 면에서도 각기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역시 그것들은 일정한 격식에 따른 規格品이 아니며 어떤 수준에 달한 職業的 匠人의 작품같은 것도 아니다. 그 고장 사람들이 저들 가운데 선명한 재주꾼 혹은 그런 몇사람의 共同製作인 것이 상례이다. 그들은 전에 만드느절 보았거나 실제 저들이 만든 경험을 통하여 自身들의 솜씨를 한

全南	求禮郡 馬山面 華嚴寺 羅州郡 茶道面 佛會寺 " 茶道面 雲興寺 靈岩郡 西面 道岬寺 " 金井面 원기 海南郡 三山面 大興寺 昇州郡 雙岩面 仙岩寺	木一基 石一雙(민속자료 一一호) 石一雙( " 一一호) 石一雙 石一雙 石一雙 木一雙 木一雙 木一基
慶北	善山郡 海平面 海平里 " 長天面 道中里	石一基 石一基
慶南	昌寧郡 桂城面 觀龍寺 咸陽郡 馬川面 碧松寺 河東郡 花開面 雙谿寺 忠武市 文化洞 統營郡 山陽面 三德里	石一雙 木一雙 木一雙 木一雙(韓國民俗博物館) 石一基(민속자료 七호) 木石各一基( " 九호)
濟州	濟州市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 " 大靜邑	石二五基 石九基 石五基

것 발휘했을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美的知識을 배우거나 훌륭한 技能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다만 눈썰미로 倣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것은 현대적 의미의 創作일 수 없으며 舊習의 의연한 답습이다. 다만 제작상 明文化된 公式이 없으므로 그들 민중의 識見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時代의 好尙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점 民衆藝術의 특징이기도 하다.

장승은 그런 점에서 서로 共通點을 갖고 있다. 순박한 地方民의 식견과 솜씨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장승을 만들어서 특별히 솜씨 자랑할 것도 없고 욕심을 부려 유별나게 다듬는다면 오히려 禁物이다. 거기서 생기는 質朴함이란 바로 生活感의 노출이고 타고난 鄉土性의 반영이란

점 등에 공통된 감각을 지닌다. 재래 장승과 달리 근자의 新造品에서 어떤 역겨움과 不自然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억지로 강조하려는 作爲 때문이다. 순박한 心性이 우러나지 않은채 모든 部分을 짐짓 과장하고 멋대로 創作을 가미해버려 도무지 質朴한데라곤 없는 것이다. 옛 장승이 어수룩한대로 情感을 불러일으키는 데 비하여 新造品은 한결같이 을씨년스러워 그것을 우리 住居부근이나 身邊에 두기엔 불쾌할 정도이다.

재래 장승이 주는 인상은 原始美術 혹은 未開人의 미술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말하자면 寫實的이면서 單純直覺的인 표현효과가 그것이다. 原始人의 미술품에 있어 목적하는 바가 같고 心性이 같으며 나아가 그들이 전체의 美的發想體系가 같을 때 공통된 屬性을 띠게 된다. 역사를 소급하여 先史시대의 岩刻畫나 壁畫는 東西가 한층 유사하다. 가령 慶南 珍陽 盤龜臺의 그림은 시베리아나 유럽의 그것과 매우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장승이 개개의 地方과 時代를 초월하여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런 일관된 屬性에 기인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原始的의 감각과 수법이 人知의 발달에 따라 차츰 時代性 地域性을 띠게 되듯이 장승은 오랜 세월을 전승되는 동안 보다 뚜렷이 韓國的인 鄉土 스타일을 형성했을 따름이다. 그것은 東北亞圈의 한 유형이며 바로 한국인의 얼굴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뉴기니아의 祖先像이나 北美인디언의 토렘플과 다른 모습이며 아프리카의 土人彫刻과도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原始彫刻이 그러하듯이 장승이 새삼 어울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단순명료하게 寫實的이면서 象徵性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外觀上 그것은 현대감각으로 이해되는 순박한 彫刻이면서 原始美術의 프리미티브한 표현에 이끌리게 된다. 그러나 만약 장승이 한갓 無動機的 裝飾에 스킴에 불과했다면 긴 세월의 持續力이 없고 일정한 스타일로 樣式化되지도 않으며 社會와의 밀접한 機能도 맺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장승은 분명한 象徵的 目的에 의하여 만들어진 造形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集團의 思想體系가 깃들여 있다. 바꿔 말하면 장승은 原始

人으로부터 비롯되는 神秘的이고 身邊的인 宗教예술의 하나이다. 장승彫刻의 종교성 내지 원시적 감각은 결국 先史시대 소급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부터 어떠한 種族들에 의하여 어떤 環境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일까. 그 대답은 매우 어렵고 구구한 것일지며 또 이 글에선 分外的 문제이다. 다만 간추려진 견해를 소개하면 蘇塗나 立石 및 累石壇 등과 더불어 장승은 아득한 옛부터 전승돼온 信仰의 한 형태라고 한다.④ 그 起源은 大自然과 樹木에 대한 신앙 및 蒙古의 오보(鄂博)나 東北亞에 퍼져있는 神竿신앙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장대 끝에 기러기(木鳥)를 얹힌 솟대 및 돌무더기 서낭당이 있는 자리에 장승이 사이 좋게 서 있는 예는 이들 三者의 유사점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일환에서 유독 장승만이 面相을 갖춰 神像의 한 스타일로 형식화한 것일까. 만약 장승이 구체적으로 刻木爲身을 얹었다라면 그것은 의형상 木柱·石柱에 불과한 물건일 것인데, 그 속에 내포된 象徵性을 조각해냄으로써 뚜렷하게 神像의 한 장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神像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근 여러 地域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니오라트체는 西部시베리아의 에니세이에 우리나라 中部의 장승群과 아주 흡사한 木偶群을 소개하고 있다.⑤ 泉靖一씨는 「神像과 假面의 民族誌」에서 비슷한 類型들을 소개했다. 蒙古族이나 西아시아나 아프리카 遊牧民들 사이에도 다소 있다. 토렘플은 東北시베리아와 알라스카 西部의 에스키모 특히 美國 서북부 인디언에 보이는 神像임에 틀림없으며, 오세아니아 일대의 祖上神은 人間の 형상을 그대로 모형화한 神像이라는 점에 특정이 있다.⑥

그럼에도 이들 여러 지역의 神像이 한국 장승의 刻木爲身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蒙古族의 신앙은 라마敎 전래 이후의 새로운 것이며 본시 土着文化와 별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牧畜을 전업으로 하는 遊牧民들에 있어서는 거대한 神像으로 만들거나 그런 생활의 여유조차 없다. 西北인디언의 거대한 토렘플

은 애니미즘의인 祖靈의 심불이며 그들이 安住集團을 이룰만큼 풍요한 自然을 가진데서 생겨난 것이다. 神像이 변면저 발생할 가능성은 農耕 사회이다. 農耕을 생업으로 하여 일정한 村落에 정착해 사는 住民들이 생가해낸 상징적 造形物이다. 作物의 풍요를 祈願하고 그에 도움을 주고 민는 靈魂을 존중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⑦ 한국의 장승은 韓民族의 농경 정착에서 비롯된 것이겠는데, 위의 신상例와는 環境과 種族에 따르는 다소 다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장승의 神體기능은 祖上神이나 死靈이 아니며 惡鬼도 아니다. 본시 뜻한바를 선뜻 짚어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애니미즘의인 自然神이다. 樹木이라도 좋고 立石이라 해도 좋다. 守護神으로서의 역할은 山神에 유사하고 通行路를 지키는 것은 路神의 소임이며 四方문지기 노릇으로 버티고 선 모습은 흡사 處容을 연상케 한다. 반드시 勸善懲惡의인 善神이 아니라 때때로 익살맞고 機智에 넘치는 실술은 도깨비에 방불하다. 확실히 장승에 대한 한국인의 思考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民族心理가 낳은 결과의 하나라 할만하다.

### III 呼稱比較

장승이 당초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었는지는 너무 분명치 않다. 農耕 사회로 정착한 原始시대부터 장승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장승에서 原初的 要素를 가려내기란 넉넉 수월하지 않다. 장승에서 발견되는 北方的 요소, 알타이 民族의 문화 유형으로 규명해봤으면 싶었는데, 그런 트집이 잡힌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선 난관이 많다. 그것은 滿洲 蒙古 시베리아 및 內陸아시아의 주요한 자료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로 미룰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장승의 본디 형태를 검토하는 한 방법으로 우선 그 名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呼稱은 「장승」이란 말인데 이는 뒤로 미루고 먼저 中部지방의 「천하대장군」, 湖南의 「박수」, 濟州島의

「물하르방」 등 地方別 일반 명칭을 정리해 보자.

중부 지방에선 장승이란 말 대신 「天下大將軍」이라 부르는 게 통례이다. 장승에 흔히 墨書하는 神將名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다. 中部지방에선 石장승이 매우 희귀하고 木장승이 많은데 통나무의 중간을 판관하게 깎아서 天下大將軍 地下大將軍이라 대칭되게 기재하는 것이다. 이런 墨書銘의 관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으나 생각컨대 장승이 天下 인간세상을 비호하는 장군격이요 土地의 귀신도 총괄하는 우두머리격이라는 尊稱이겠다. 천하대장군 이외에 中部지방에선 또 「살막이」 「수살막」 「수살막이」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살」을 민속에서害 끼치는 독하고 모진 氣運이나 惡鬼의 짓을 가리키므로 곧 煞을 막아주는 게 살막이이다. 「수살」은 水殺 즉 동네 어귀에 있는 특별한 의미의 木·石을 일컫는 민속학 用語. 그 돌과 나무는 부락의 守護 역할을 상징한다. 수살은 人爲的 立石·立木이 태반이므로 水殺木이란 목장승을 水殺과 동일시하는 칭호이다. 그러나 「수살막이」는 살막이에서 와전되어 水殺과 木과 혼동을 일으킨 말이었다.

湖南과 慶南일부에선 장승을 「박수」라 일컫는다. 유독 그것이 1基 뿐일 때는 「獨박수」라 하는데 雙으로서 있을 경우엔 「雙박수」라하지 않고 그냥 「박수」라고만 한다. 張籌根씨는 박수란 말을 圖讖風水와 결부하여 山川裨補를 뜻하는 「下水」가 와전된 것이 아닌가 풀이했다. ⑧ 그러나 下水라는 복합어는 어딘지 어색하다. 오히려 와전된 發音이라면 「박수」나 「法首」가 근사하지 않나 생각된다.

박수는 무당이 女性중심임에 대하여 그를 보조하는 남자무당을 지칭한다. 즉 장승이 山神堂이나 솟대(神竿)를 보조하는 소임의 神像이라는 점에서 박수에 비견하는 호칭은 아닐는지. 혹은 安城 七長寺 계곡으로 넘어가는 박수고개는 口傳에 무당 애기로 풀이했지만 ⑨ 본시 장승이서 있던 재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보다 더 비전되는 말은 法首인데 이는 돌난간의 左右 끝 기둥을 가리키는 建築用語이다. 그 기둥머리에 辟邪와 威嚴의 상징으로 여러가지 짐승을 조각한다. 法首란 말은 中國에서

候와 동일한 法樹의 다른 표기이고 湖南이 중국과 해상교통의 요로인 점으로 보면 木수가 法樹에서 유인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木수가 본시 우리 말이 아닌가도 생각해볼만한 문제이다. 물론 이 말뜻은 「장승」과 함께 해당 학계의 규명을 바람직하다.

그밖에 全北 扶安지방에선 男像장승을 「할아버지」, 女像장승을 「할머니」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장승과 병존하는 할아버지堂山 할머니堂山으로 일컫는데서 생긴 특별한 호칭일 것이다. 濟州島에선 「돌바방」 「偶石木」 등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돌로 만든 할아버지 후은 人相의 彫刻品이란 뜻이다. 金榮敦씨는 한 보고서에서 이것을 堂神樹의 變形이요 정주목신의 神像으로 보았다. ⑩ 장승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은 「돌미륵」인데 이는 山野에 산재하는 미륵石佛과의 혼동에서 온 말이라 생각된다. 「候將」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里程標로서의 「候」에 장군 칭호를 첨가한 일컫음이다.

앞에서 살핀 各地方 호칭 가운데 살막이·수살목을 제외하곤 다분히 外形에 따라 命名한느낌이다. 이같은 外觀치중의 이름이 한국 전역에 분포해 있다는 사실은 장승의 內在的意味 내지 信仰的機能이 한결 약화됐다는 해석이 되며 그만큼 시각면의 비중이 더 커진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상의 外觀的 명칭의 유포에 앞선다고 여겨지는 「장승」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옛 文獻에는 오늘날의 통상명칭이 보이지 않으며 「장승」의 漢字표기를 뿐이다.

一七세기의 金壽長은 그의 시조 『陽春이……』에서 「將丞」이라 했다. ⑪ 朝鮮初成倪의 慵齋叢話에선 「長柱」이라 썼고 ⑫ 新羅·高麗의 기록에는 한결같이 「長生」으로 나온다. 崔世珍의 訓蒙字會에선 候字를 「당승후」라 풀이했고 또 長承浦같은 전래지명이 있는 것도 참고로 삼을만하다. 전설에는 張씨성을 가진 홀아비가 과년한 딸과 정을 통하려 하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된 딸이 자살하고 말았다. 이 소문이 퍼지자 임금님은 張씨를 극형에 처하는 한편 그의 形像을 나무에 새겨 고을마다 세우게 함으로써 「張姓」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⑬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어떠한 漢字로 표기됐든 「장승」이라는 원래의 우리말을 假借한데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將丞」이란 武官의 표현으로 驛丞과 비슷하게 구민 용어이다. 「長柱」의 柱는 장승을 표기하기 위해 지어낸 國字로서 말하자면 長生木의 부합자인 셈이다. 地名의 「長承」도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訓蒙字會에서 候를 장승이라고 한 것은 中國에서 里數를 표하기 위해 路邊에 마련하는 土堡와 標木에 빚대어 인용한 해석이다. 慵齋叢話에서 이미 지적돼 있듯이 『장승을 보고 下人을 시켜 잇수를 살펴보게 했다』고 한 것은 장승에 里數를 적어 넣는 습속이 오랜 일임을 말한다. 그러나 中國이나 日本에 있어 候는 장승과 엄밀히 다르다. 候는 한갓 里程標에 지나지 않으며 神像彫刻도 없는 것으로 안다. ⑭ 「長生」의 해석은 孫晉泰씨를 비롯해 대체로 長生不死 즉 오래 살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고 혹은 道教的인 영향에서 나왔다는게 통설이다. 그러나 장승을 영구한 표지로 세웠다는 해석은 辭典풀이의 안이한 적용이 아닐까.

高麗나 新羅시대의 기록에 나오는 長生은 그 두 자만 나오는 경우가 없으며, 長生標柱·國長生石標처럼 그 앞뒤에 붙인 但書를 통하여 그것이 標木 立石 불무더기(石積)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長生은 단 순히 영구불멸이라는 형용사적 낱말이 아니라 그 핵심이 본연의 象徵性에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長生 표기가 모두 寺刹 주변의 窠말에 한 정돼 있다는 점과 後代에 갖가지 한자로 假借해 썼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장승의 원말 뜻에 대해선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는 한국 장승 나름의 고유 의미 때문에 우리의 祖上은 새로 國字를 만들어 長柱이라 썼던 것이며 지금 구미여 한자를 쓰려한다면 그것으로 통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V 武士性格

문헌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最古의 記錄은 統一新羅 景德王 때의 것

이다. 朝鮮金石總覽에 의하면 長興 寶林寺의 普照禪師靈塔碑에 景德王  
一八(七五九)년 왕명으로 長生標柱를 세웠다고 하였다. ⑤ 三國遺事에  
의하면 淸道 雲門山禪院의 長生標塔이 열 하나를 헤아린다고 하였다. ⑥  
현존하는 寶物 七四호 梁山 通度寺 國長生石標에 새겨진 글에는 高麗 宣  
宗二年(一〇八五)에 『前判判이……다시 세운다』고 하였다. ⑦ 文化財  
大觀에선 이를 풀이하여 『그 전에도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오래 서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通度寺 창건 후부터의 일이었을 것으로 여  
겨진다』고 하였다. 그 창건은 六四六년이다.

通度寺 國長生石標에 나오는 長生이란 말을 바로 장승이라 하지만 거  
기에는 장승의 外形에 대해 언급이 없다. 다만 현존 石標에 미루어 기둥  
모양으로 짐작하며 標柱・標塔이니 하는 것으로 보아 못말처럼 마련했  
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通度寺 金利袞婆事蹟略錄에 의  
하면 裨補長生標가 一二人인데 장소에 따라 木榜장생표 石積장생표 石  
碑장생표 등을 각각 두었다고 하였다. ⑧ 즉 이것들은 단순한 못말이나 돌  
무더기가 아니라 象徴의 「장승」임을 강조한 복합어이며 특히 통털어 裨  
補長生이라 하였음은 장승의 意味나 彫像化 과정을 추정하는데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任東權씨는 『韓國原始宗教史』에서 장승에 대해 언급, 長生과 더불어  
「貼柱」도 神域 표시와 逐鬼의 두가지 의미로 세워진 것이라고 하였다. ⑨  
貼柱는 埃白寺 및 伯岩寺에 관한 三國遺事의 기록인데 貼柱가 장승과  
유사한 것인지는 아직 수긍되지 않아 뒤로 미루어둔다.

이같이 新羅 高麗 때 장승의 기록은 寺刹에서 長生 구실과 같은 用處  
로 어떤 표적을 세운 것이라 하였다. 물론 남은 기록이 寺刹 것뿐이니  
까 어쩔 수 없는데, 오늘날의 장승은 佛敎的이라기 보담 民間의 土俗에  
밀착돼 있고 반드시 面相을 조각한 것만을 장승이라 일컫는다. 朝鮮시  
대의 기록을 비롯해 오늘날 標木이나 돌무기를 장승이라 부르는 일은  
없다. 「長生」이란 표기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慵齋叢話의 장승 기록  
은 구체적으로 그 형상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얘기하며 길은

가다가 인듯 장승을 분간할만큼 그냥 標木이 아닌 독특한 형상임을 암  
시하고 있다. 그 점 장승은 꼭 오래전부터 彫像法을 써서 神像을 만들었  
다고 추정되며 面相이 있는 것이라야 장승이라 일컫는도록 통념화된 것이  
겠다.

그러면 문제는 장승彫刻이 언제부터일까 하는 점이다. 新羅나 高麗  
때 사찰에서 세운 장승은 대체로 조각 없는 못말로 民間의 것과 비슷했  
다 하더라도 高麗의 어느 시기부터는 서서히 彫刻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일반 神像의 조각은 이미 三國시대 기록에도 보이며 高句麗의 始祖 朱  
蒙神 등으로 미루어 조각이 있었다고 보았다. ⑩ 그러나 장승의 조각에  
관한 기록은 볼 수 없으며 다만 현존품 가운데 建立연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朝鮮후기의 돌장승 뿐이다.

전립 연대가 가장 오랜 것은 扶安邑 西外里 성문안 堂山의 장승으로  
肅宗때인 康熙二八(一六八九)년. ⑪ 羅州 雲興寺 장승은 英祖때인 康熙  
五六(一七一七)년. ⑫이며 濟州市 三門밖의 장승도 같다. ⑬ 昌寧 觀音寺  
장승은 幢竿支柱의 전립과 함께 제작됐다고 보아 一八세기 후반으로 보  
고 있다. ⑭ 忠武市 文化洞의 벽수는 훨씬 늦은 一九〇七년에 세운 것이  
다. ⑮ 이밖에 南原邑 王亭里 절터에 유존하는 장승을 들 수 있었는데 그와  
병존하는 塔 幢竿支柱가 모두 萬福寺 창건 즉 高麗 文宗(一〇四七~八三)  
때의 유물로 보고 있다.

萬福寺 장승은 절터 앞의 노변에 下半身이 문천체로서 있는데 그 계  
과연 장승인지의 여부엔 다소 의의가 없지 않으나 대개 장승이란 데의  
견을 모으고 있다. 상투머리의 이 장승은 부리부리한 눈매와 볼거진 광  
대뼈, 꼭 다문 입 등 다부진 용모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인 武將차  
림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적이고 力動的인 근육 표현은 新羅 불교 조각의  
金剛力士나 慶州 掛陵의 武人像이 풍기는 표정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  
다. 또 머리 정수리의 커다란 상투는 金剛力士나 高句麗 古墳壁畫의  
力士・門守와도 같다. 장승에 있어서 아같은 力士 내지 武人像의 인상은  
장승이 본시 가지고 있는 機能을 은연중 나타낸 것이 아닌가 주목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장승으로 冠을 쓴 경우는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그중에는 甍笠과 같은 武人の 모자도 적지 않다. 朝鮮중엽에 속하는 牟慶衍의 詩에서는 장승이 길가에 우뚝 선 모습을 『길 잃은 楚나라 項羽』<sup>②</sup>에 비유했다. 項羽는 고집스럽게 길목을 지킨 천하제一の 힘센 장수이며 中部지방의 紗帽 쓴 儒者 장승에선 연상해낼 수 없는 인물이다. 역시 儒者像은 잡귀를 쫓고 길을 지키는 神將으로서 알맞지 않은 차림이며 오히려 南原 實相寺 장승과 같은 병거지 쓴 당당한 용모가 제격인데, 時代 변천에 따라 민중의 好尙도 바뀌어 武人이 선비로 변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鄭文學는 그의 문집 「農圃問答」에서 朝鮮 중엽 당시의 衣冠 풍조를 지적했다. 즉 개를 잡고 소를 잡는 무리도 갖을 쓰지 않는 자가 없으며 시골에서조차 전립을 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개탄하면서 武臣과 武士는 전립과 같은 옷칠皮笠을 쓰고 下人과 雜閑輩에게는 紙笠이나 전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③ 이는 武班보다 文班이 되기를 원하는 민중의 반영이다.

돌이켜 보면 한국인의 민중에는 將軍信仰의 예가 적지 않다. 地緣적으로 허다한 전쟁을 겪으며 살아왔고 특히 外勢의 침공에 대하여 不安을 느껴온 民族인 까닭에 武將에 대한 특별한 奉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金泰坤씨는 민중신앙에 있어 신앙의 대상이 되는 神을 類別하는 가운데 高靈, 高靈교로서의 將軍神, 계통과 路神, 門神, 方位神 등 神將神계통을 들고 있다.④ 巫俗에서 群雄웅배나 崔瑩, 林慶業, 李舜臣, 金庚信, 福信 등 역사적인 武將을 신으로써 받드는 것도 모두 장승을 「:將軍」이라 한 것과 武人으로 조각한 점 등 민족심리와 연관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전립 즉 병거지를 쓴 장승은 實相寺 장승을 비롯하여 南原雲峰 扶安 靈岩 장승 등 湖南지방의 비교적 오랜 殘存例에서 볼 수 있다. 또 濟州 島 돌하르방은 모두 병거지를 쓰고 槍을 든 자세이다. 이것들을 萬福寺 장승과 연관짓는다면 일년의 壯士 내지 武將像으로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선비 스타일의 紗帽 쓴 장승은 朝鮮시대에 있어서 儒者 우위사상이 빚어 낸 後世의 變形이 아닌가 생각된다.

〈註〉

- ① 崔常壽言 「原初의 彫刻美 장승」韓國의 몇 P. 三二四 讀書新聞社 一九七三
- ② 張籌根言 「忠武市文化洞벽수」(一九六八) 文教部 民俗資料調査報告書 제七(호)에서 제시한 장승의 수효로서 六七년말 全國 部落祭堂 一齊 書面調査의 결과 附帶資料를 집계한 것임.

③

京畿	慶北	慶南	濟州	忠北	忠南	全北	全南
二	二	六	三九(基)	四	一五	七	八
筆者 확인 所在地數	筆者 확인 所在地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慶北	慶南	濟州	石材	石材	木材	木材	未詳
二	六	三九(基)	五四	五四	一一	一一	一一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張籌根 집계數

④ 任東權言 「韓國의 野의 呪物」美術手帖 一九六七·六월호 東京 美術出版社  
『長姓은 蘇塗 立石 累石壇등과 더불어 아득한 옛부터 전해오는 民族信仰의 하나인데 그 起源은 蒙古의 鄂博(오보)와 관계가 있다는 說도 있다. 一名 先王壇이라고도 불리는 累石壇과 鄂博은 거의 같은 機能을 갖고 있으며 累石壇과 蘇塗와 長姓이 同一場所에 함께 사이 좋게 서 있는 예도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孫晉泰 「蘇塗考」(朝鮮民族文化의 研究 所收)의 견해를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 ⑤ 니오라트체著 牧野弘一譯 「시베리아諸民族의 샤만敎」 P. 四九 東京 生活社 一九四三
- ⑥ 泉靖一全集 卷六 「文化人類學에서 무엇을 求할 것인가」 P. 三〇一~三二二 東京 讀書新聞社 一九七二

